



한·인도 확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방한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CEPA 개선 협상 조속 마무리

文 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철도·항만 인프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 확대”
 “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 평화위해 공동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인도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두 나라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 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인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두 나라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디 총리는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신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며 “두 나라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권익 보호·고충 해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보호 전담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1월엔 지방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법무행정과(전화 : 280-2887, 팩스 280-29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되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본격 시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사·교육강사 19명 위촉

전북도가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도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과 상담 및 치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을 추진할 가정방문상담사와 예방교육강사 위촉식을 갖고 3월부터는

가정, 학교, 단체 등 교육이 필요한 곳에 상담사와 강사를 보내 상담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방문상담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터넷 과의존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가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방문상담(6회)과 전화상담 2회를 실시하며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1번에 한하여 추가 진행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학교, 단체 등 교육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예방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과의존 예방법, 이용습관 형성 등에 대한 교육으로 예방교육에는 유아·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인 레몬교실과, 레몬교실의 심화과정으로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는 WOW멘토링이 있다.
 이 밖에도 전북스마트쉼센터에서는 수시로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을 실시하며, 놀이치료, 집단상담,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상담 신청은 전북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jcc.or.kr)에 신청하거나, 전화(063-288-8495~7)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놓치지 마세요”

전북도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2015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여 2016년에 처음 도입·시행된 사업으로 4년째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이다.
 지난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에는 20~70세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만원을 지원, 금년에는 대상

범위를 20세~75세(1945년 1월 1일생~1999년 12월 31일생)까지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해 연간 15만원을 카드로 지원한다.
 2019년 지원인원은 2만3,000명이며,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된다.
 현재 2월18일 기준으로 시군 접수상

황을 보면 신청자가 19,180명으로 83.4%가 신청했다.
 생생카드 미신청자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미응실, 안경점, 화장품점 등 37개 업종을 전국 어디서나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만족도 조사결과, 73.1%에서 81.4%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된 것을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투어패스 홍보기자단 발대식 개최

전북도는 지난 22일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의 맛과 멋, 전북여행을 즐기는 전북도민 10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전북투어패스 홍보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제2기 전북투어패스 기

자단은 올 12월까지 계절별 테마(봄소풍, 가족여행, 여름휴가, 가을추억, 단풍여행, 겨울 눈꽃여행 등)를 소재로 여행을 기획하고 도내 14개 시군 80여 개소의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활인가맹점을 여행하는 코스를 직접 짜고 여행

한다.
 그리고 관광지, 체험활동, 교통정보 등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생생한 여행기록을 기자단 개인블로그 및 전북투어패스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jtourpass)에 포스팅할 계획이며, 전북투어패스 바이얼미케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팔도장터 관광도 하고 할인도 받아요!

부안상설시장·고창시장, 팔도장터 관광열차 대상 선정

전북도는 전국 15개 시장을 선정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대상시장 공모(중기부)에서 도내 부안상설시장과 고창전통시장 등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레일이 연계하여 진행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국의 명소인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용열차로 연간 3만여명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관광상품이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3월부터 11월까지 6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행

되며 열차내에는 전통시장 특산물, 먹거리와 해당지역 관광명소 등을 전시 홍보하는 종합 관광정보가 제공된다.
 비수기(7~8월)와 평일 등 전용열차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ITX·KTX의 일부 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열차가 도착하면 잡터채널, 이벤트와 특판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열차임금(연계버스, 관광지입장료, 문화관광

해설사 포함 1만5,000원)과 운수리 상품권 5,000원이 지원되며, 전통시장내 구매금액의 30%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기차여행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관광객 몰이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와 장보기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팔도장터 관광열차의 고객편의도 증진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